

로인통소대 화합의 선률 휘발하에 올려퍼져

음악으로 조선족 문화유산 전승하고 민족간의 리해와 융합의 가교 역할



▲ 해룡호공원 공연 현장

13일, 매하구시 도시거실(客厅) 풍경구의 휘발광장에 은은한 통소 선률이 울려퍼졌다. 많은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아름다운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이는 매하구시민족문화관 지속 통소대가 민족 무형문화재를 홍보하고 서로간의 우의를 증진하며 민족단결 도모를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매하구시민족문화관과 매하구시 조선족활영가협회, 아리랑예술단, 통소대 대원 가족들이 참가했다.

행사는 다채로운 공연무대로 이어

졌다. 대원들이 합주하는 구성진 통소소리는 색바랜 옛 추억을 불러오고 섹스폰과 전자피리의 아름다운 멜로디는 현대풍으로 흘러넘쳤다. 이어서 선보인 독창, 소합창, 무용 등 다양한 공연들은 행복한 삶에 대한 사랑과 기쁨,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했다.

공연후에는 체육대회가 열려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등근 테를 던져 보물 잡기(套圈)', '풍선 끼고 달리기', '눈 가리고 북 치기' 등 게임이 진행되자 현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뜨거

워졌다. 점심식사후에는 자유로운 오락시간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서로 어울려 잠깐이나마 생활 속의 번뇌를 잊은 채 노래와 춤으로 즐거운 휴식의 시간을 보냈다.

통소대 서명하 대장은 "여러 부분의 지지와 참여 덕분에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정했던 목적을 달성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자주 개최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매하구시조선족활영가협회의 협조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 통소대는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인 로인들로 구성되었다. 2019년 매하구시민족문화관에서 선생님을 초빙해 운영한 통소 학습반 출신들을 바탕으로 홍범룡, 권옥순, 장준길 등 골간 회원들의 노력으로 설립되었다. 대원은 초기 5명에서 현재 장구와 북 연주자, 손풍금 연주자 등 16명으로 늘었으며 조선족과 한족 대원이 포함된다. 통소대 대원들은 매하구시민족문화관에서 정기적으로 훈련하는데 매하구시의 대형 행사와 여러 문화 행사, 조선족 혼례, 칠순잔치, 결혼기념일 등에 참여해 독특한 민족음악의 매력으로 대중들에게 예술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한족 대원 왕옥(王旭)은 "통소 연주를 접한 순간 조선족 악기의 깊은 매력에 빠져 대오에 합류했다."면서 "연주 기법을 배우는 것은 물론 대원들과 교류를 통해 진한 형제민족의 정을 느끼며 행복한 로후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 민족단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매하구에 뿌리내린 이 통소대는 음악으로 조선족 문화유산을 전승하며 민족간의 리해와 융합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의 선률이 닿는 곳마다 민족단결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 글 문광호특약기자 / 사진 김수동, 윤국철

마반산촌로인협회, 민족단결화합 속 전통 계승



▲ 마반산촌 촌민과 로인회방반 회원들이 함께 열창하며 화합을 다졌다.

6월 12일 오전, 도문시 장안진 마반산촌 당지부 서기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무영성(武永成, 36세, 한족)과 촌로인협회 차은숙 회장 일행은 연길시 '로병사의 집'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는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네>, <따라배우자 괴봉을> 등 노래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마반산촌 촌민과 로인회방반 회원들이 함께 마반산을 노래한 <농민의 노래>를 열창하며 화합을 다졌다.

일행은 '로병사의 집'의 발자취를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며 함미원조 참전 영웅들의 위대한 공헌을 되새겼다. 특히 피로 얼룩진 유물 <복수>를 통해 동북인민군 독립 6사 권역룡련장 등 선렬들의 영웅사적을 되새기자 일부 참가자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일행은 전시된 사진과 유물을 관람하며 선렬들이 피로 지켜낸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여생을 나라의 발전에 바치리라 다짐했다. 한미원조 참전 로병사 정수암(한족)은 정전터에서 부르던 노래를 조선어로 힘차게 불렀고 참전 로병사 조준자(조선족)도 감회에 젖어 노래를 불렀다.

오후 행사에서 일행은 수많은 국가급 영예를 따낸 연길시 북산가두 단영사회구역역을 방문했다. '홍석류의 집'

에서 민족단결의 꽃을 피워온 단영사회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했다.

전국민족단결모범, 전국도덕모범 등 수많은 영예를 지닌 단영사회구역 왕숙정 서기는 능숙한 조선어로 일행을 따듯이 맞아주었다. 이어진 행사에서 <나의 조국>, <우리는 중화를 사랑해>, <중화민족 한가정> 등 노래와 춤으로 사회구역 전체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특히 왕숙정은 조선족 마을인 마반산촌을 '민족단결모범촌', '애국영생모범촌' 등 선진촌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무영성 촌서기의 소개를 듣고 "저희와 같은 직업이시네요."라며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도시와 농촌이 손잡고 함께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기여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마반산촌 로인들은 연길 로인회방반과 친목 행사를 하면서 훌륭한 볼거리를 즐겼으며 이는 로인들의 필수 영양소라며 소감을 털어놓았다.

도시와 농촌 로인들이 함께 홍석류 전자를 전승하고 로후생활 체계를 교류하며 새시대의 행복한 생활을 구가한 이번 모임은 너무나도 값진 향수였으며 모두들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 박철원특약기자

창문 열면 풍경, 숨은 공간 368 곳 시민 휴식처로

최근, 장춘 시내 곳곳이 화려한 색채로 물들었다. 도시의 '주변 공간'들이 생동감 넘치는 소규모 공원으로 탈바꿈하면서 시민들은 창문만 열면 풍경이 보이고 집을 나서면 바로 공원을 만나는 여유로운 일상을 누리게 되었다.



료해에 따르면 장춘시립업원립국은 '담장을 허물어 녹지를 만들고 빈 공간에 녹지를 추가하며 틈새마다 녹지를 창출한다'는 리념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도시의 공간과 구석진 공간, 버려진 부지 등을 소규모 공원으로 변화시켰다. 장춘시는 2024년말까지 포함 368 곳의 미니공원(口袋公园)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의 공원을 개선했다.

수중, 채색이 수중을 조화롭게 배치했다. 현재 공원의 화려한 분홍색 풍경이 SNS에서 인기몰이를 하며 젊은 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색있는 표지판과 길안내판, 동물 모형, 캐릭터 장식품 등이 거리의 색깔을 풍부하게 하고 있으며 모래장, 소리전달통, 드럼 악기, 널뛰기 공간 등 아이

들을 위한 놀이터를 조성했다. 공원 부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왕녀사는 "예전에는 버려진 빈터였는데 지금은 훨씬 아름다워지고 설 곳도 많아졌어요. 아이를 마중할 때 앉아있을 곳도 생겼고 아이들도 방과후에 여기서 놀아요."라고 말한다.

장춘시립업원립국은 금후 계속해 세밀한 관리로 공원이 도시의 활력 세포가 되고 녹색이 장춘의 끊임없는 '성장원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건기자

화룡시, 촌민 스스로 만드는 아름다운 고향

최근 화룡시는 인민대중들의 행복 지수를 제고하는 것을 사업의 핵심으로 '정리·정돈·정화(斷舍離)' 3단계 방안을 추진하고 농촌 환경정비 문제를 해결하여 촌을 '더럽고 혼란한 상태'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화룡시 복동진 여러 촌의 화초비닐 하우스에서 촌민들이 흙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꽃을 심으며 신나게 일하고 있다.

올해 화룡시는 '마을의 외관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촌민들에 대한 자기 관리, 자기교육, 자기 봉사, 자기규범, 자기감독 의식을 강화하여 '피동적인 정비'에서 '주동적인 참여'로 전환했다. 촌민규약과 '애

을 정리하고 있었다. 류동촌촌민위원회 부주임 왕신(王晨)은 "촌에서 공익성 일터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촌의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며 "환경이 좋아지니 마음도 상쾌해진다."고 말했다.

홍화촌의 촌민들은 광장에서 운동을 좋아한다. 최근 촌민위원회는 촌간부와 서부계회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여 백색쓰레기와 방치된 공간 청소에 나섰다. 촌민 한무력(韓武力)은 "촌이 깨끗해지니 쓰레기를 마구 버리지 않는다."며 "쓰레기를 발견하면 쓰레기통에 넣는 것이 당연해졌다."고 말했다.



▲ 동신촌 촌민들이 마을 도로변 화단의 잡초를 제거하고 꽃을 가꾸고 있다.

화룡시는 '다섯가지 정리, 세가지 정비, 두가지 제고'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세부 목표를 수립하며 작정도를 세심하게 작성했다. '촌 맞춤형' 정비 방안을 제정하여 정돈사업으로 전면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정돈 사업을 불려일으켰다. 선전선봉대 역할을 발휘하여 방송, 전단지 발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농촌 생활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전사회가 환경정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지하는 훌륭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현재 촌민들은 자발적으로 촌 외관 개선 및 록화미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230여그루의 록화수와 5,000여그루의 꽃을 심어 마을을 색채를 더하고 있다.

남평진 류동촌촌민위원회 마당에서는 촌간부와 촌민들이 진흥과 락업

특히 '8대 철거' 작정으로 불법 건축물과 폐기물 시설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다. 촌간부와 촌주제 사업대, 도급단위, 격자원 등 여러면의 힘을 모아 조사, 파악 사업을 착실하게 전개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상세한 장부를 건립했다. / 오건기자

'심양철도 휴일호' 로인전문열차 운행

11월 16시 55분, 720여명을 태운 '심양철도 휴일호' 로인관광전문열차가 대련역에서 출발하여 20일간의 아름다운 신강 여행을 시작했다. 이 또한 국가철도심양국이 운영하는, 신강 방향으로 가는 최초의 '심양철도 휴일호' 로인전문열차이다.

이번에 운행하는 '심양철도 휴일호' 로인전문열차는 료녕, 녕하, 감숙, 신강 등 네개 성(자치구)을 지나는데 20일간의 일정 동안 관광객들은 신강 백사호, 카시가르 고성, 이녕 사리무호, 천산 천지, 카나스, 화염산 등 11개 국가 5A급 풍경구와 11개 4A급 풍경구를 유람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가철도심양국은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식사 환경과 보다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철도심양국은 로인친화적 음식 봉사를 혁신적으로 출범했는데 이번 전문열차의 식사 차간을 부패로 개조하고 스타급 호텔의 표준에 따라 배치했다. 30여 종류에 100여가지 요리를 제공하고 로인관광객들의 저유저지방, 저당저염의 식사 수요에 따라 여러가지의 영양가가 있고 건강한 요리를 선보여 많은 로인관광객들의 환영을 받았다. 동시에 관광객들이 새로운 식사 방식을 더 잘 체험할 수 있도록 열차에서는 승객에게 식사 체험권을 제공하여 관광객들이 체험

권을 통해 식사 차간에서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의 국가철도심양국은 관광객들의 나이, 취미 등 특성에 근거하여 열차에서 장기및가드대회, 서예대회, 퀴즈대회, 혁명가요 부르기 대회, 사진대회 등 다양한 문화관광활동을 조직함으로써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해 관광객들이 긴 여행중에 느긋한 생활



의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입수한 데 따르면 관광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국가철도심양국은 장백산, 주스화 등 방향으로 가는 '심양철도 휴일호' 관광전문열차를 운행하여 많은 관광객들의 여름 휴가철 여행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 예정이다. / 인민넷